



K리그 인천, 사회공헌활동 '한 골의 행복' 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가 인천 지역 소외계층 관중 수송 환자를 위해 국제바로병원과 특별한 캠페인을 기획했다. 인천 구단은 지난 17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대구FC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2 13라운드 홈경기에 앞서 국제바로병원과 '한 골의 행복' 캠페인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뉴스시스

韓양궁, 월드컵 男컴파운드 단체전 '동'

한국 선수단 첫 메달...女컴파운드는 결승 진출



17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광주2022현대양궁월드컵 컴파운드 예선전, 대표 선수들이 10점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 양궁 남자 컴파운드가 광주 2022 현대월드컵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이다.
김종호, 최용희(이상 현대제철), 양재원(울산남구청)으로 구성된 한국 남자 컴파운드 대표팀은 18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컴파운드 남자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덴마크를 238-229로 꺾었다.
한국 선수단의 첫 대회 메달이다. 리커브와 컴파운드에서 총 10개 메달이 걸린 가운데 한국은 내심 전

종목 석권을 기대했다.
한국은 준결승에서 인도와 233-233으로 동점을 이뤘 슈트오프 승부를 펼쳤고, 여기서 26-29로 저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김윤희, 송윤수(이상 현대모비스), 오유현(전북도청)으로 구성된 여자 컴파운드 대표팀은 준결승에서 인도를 230-228로 꺾고 결승에 안착했다.
오는 21일 에스토니아와 금메달을 두고 다툰다. /김용범 기자

KIA, 롯데에 9회 역전승...SSG 무승부

KIA, 19승19패로 5할 승률 복귀

한화는 삼성 5연승 저지...NC 단독 최하위

사직에서 벌어진 뒤틀린 대결에서 KIA 타이거즈가 웃었다.
KIA는 17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4-3으로 이겼다.
2연패에서 벗어난 KIA는 19승19패로 5할 승률에 복귀했다.

선발 이의리가 7이닝 5피안타 8탈삼진 1실점의 역투를 펼친 가운데 장현식이 1이닝 3피안타 2실점으로 쑥스러운 구원승을 챙겼다. 5월 들어 완연한 부활을 알린 소크라테스는 결정적인 솔로포 포함 3안타 경기를 펼쳤다.

롯데(20승1무17패)는 만원전 최준용의 난조로 속 쓰린 1패를 떠안았다. 퇴출 위기에 놓인 선발 스파크맨은 6이닝 4피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KBO리그 입성 첫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해 일단 한숨을 돌렸다.

두 팀은 1회 1점씩 나뉘어 가졌다. 선공에 나선 KIA가 상대 실책과 김선빈의 안타로 만든 무사 1.3루에서 나성범의 병살타 때 선제점을 뽑았다.

롯데는 1회말 안치홍의 선두타자 홈런으로 곧장 균형을 맞췄다. 타격전이 예상됐던 경기는 6회까지 소강상태를 보였다. 스파크맨은 고비 때마다 더블 플레이를 이끌어 내며 이닝을 늘렸고, 이의리는 속구를 주무기로 롯데 타자들을 돌려세웠다.

7회 KIA가 다시 치고나갔다. 2사 1.2루에서 박찬호의 내야 땅볼 때 롯데 3루수 한동희의 실책이 나왔다. 중심이 무너진 한동희가 2루로 던진 공이 악수구로 이어졌다. 그 사이 2루 주자 최형우가 홈을 밟았다.

롯데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았다. 7회 2사 1.3루 기회를 놓친 롯데는 8회 KIA 필승조 장현식을 괴롭혀 2사 만루를 만들었다.

타석에 들어선 피터스는 초구를 강타해 좌중간에 떨어지는 2타점짜리 역전 적시타로 연결했다. 다시 롯데의 3-2리드.

하지만 9회는 롯데 홈런들의 바람과 정반대로 불렀다. 선두타자 소크라테스가 마무리 최준용의 슬라이더



KIA 8회초 공격 2사 주자 2루서 소크라테스가 1타점 적시타를 때리며 출루하고 있다.

를 노려 동점 솔로포를 때렸다. 맞는 순간 홈런임을 직감할 정도로 큰 타구였다.

최준용은 크게 흔들렸고 KIA는 황대인의 안타, 박찬호의 볼넷으로 흐름을 이었다. 1사 1.2루에서는 류지혁이 유격수 옆을 빠져나가는 적시타로 2루 대주자 김도영의 역전 득점을 이끌어냈다. /뉴스시스

SSG 랜더스와 두산 베어스는 연장 12회 접전 끝에 9-9로 비겼다.

SSG는 패배, 두산은 승리과 다른 없는 무승부였다. SSG는 25승2무12패로 1위를 유지했다. 두산은 20승1무16패로 단독 3위다.

김민혁은 7회부터 마스크를 쓰고 6이닝을 1실점으로 틀어막았다. 7회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8회부터는 안정적인 포구로 투수들의 호투를 도왔다.

공동 9위 한화 이글스와 NC 다이노스의 운명은 엇갈렸다.

한화는 안방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4-3으로 제압했다. 13승26패로 단독 9위다.

이민우가 난세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23일 KIA에서 트레이드된 이민우는 이적 후 첫 선발 등판 경기에서 5회까지 4피안타 1실점으로 잘 버텼다. 시즌 첫 승(1패).

5연승이 무산된 삼성은 20승18패를 기록했다. 백정현은 6이닝 7피안타 2실점으로 잘 던지기도 패전 투수가 됐다.

NC 다이노스는 실책 3개를 쏟아내며 키움 히어로즈에 4-11로 대패했다. 시즌 성적 12승27패로 공동 9위에서 단독 최하위로 떨어졌다. /뉴스시스

3년 만에 '법성포 단오장사 씨름대회'

22개 시군 850여 명 참가...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영광군은 '2022 영광법성포단오제 단오장사 씨름대회'가 오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서해안 대표 문화축제 '영광법성포단오제'가 3년 만에 개최됨에 따라 대표 경연 행사인 '단오장사 씨름대회'도 발맞춰 열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할 전망이다. 대통령배 전국씨름왕 전남도 선발

대회를 포함한 이번 대회는 읍·면 일반부 단체전(5인), 관내 초·중·고 단체전(3인)과 개인전(2인), 호남권 초·중·고 엘리트선수부 개인전 등 850여 명의 아마추어 동호인, 엘리트 선수들이 참가해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3년 만에 개최되는 영광법성포단오제의 최대 볼거리 중 하나가 될 '2022 영광법성포단오제 단오장사 씨름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단오의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 법성포단오제 씨름대회는 법성포 뉴타운 특설씨름장에서 6월 3일부터 4일까지 예선전을 치르며 6월 5일 오후 1시부터 결선 경기가 시작할 예정이다. /영광=서종민 기자

제61회 전남도체육대회, 순천시 개막

내일 도민 화합 '스포츠 한마당'...22개 시·군 참가



'생태수도 순천에서 하나되는 전남체전'을 슬로건으로 200만 전남도민의 화합과 영원한 전진을 다짐하는 스포츠 축제, 제6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오는 20일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서 개막해 23일까지 나흘간 펼쳐진다. /순천=조순연 기자

전남도체육회가 주최하고 순천시와 제61회 전남도체육대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22개 시·군 7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육상·수영·축구·테니스·정구·배구·탁구·복싱 등 24개 종목에 걸쳐 시·군대항전으로 열린다.

개막행사는 20일 순천팔마종합운동장에서 '새로운 순천의 찬가'를 주제로 펼쳐진다.

개막식에 앞서 오후 4시부터 '하나되는 사람들'이라는 소주제로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선수단을 맞이한다. 오후 6시 30분부터 식후 공개행사로 SF9, 송가인, 장민호, 김연자 등 인기 가수 축하공연을 펼쳐 대회 개막행사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순천=조순연 기자

중고채 사고팔면 골마켓 광주 일곡점

골마켓 광주 일곡점

각종브랜드 골프클럽/용품 판매

최고피팅 ◆ 최고시설 ◆ 최저가격

골마켓의 정교한 피팅 최신식 분석 장비 완비중 중고채 사고팔면

골퍼들을 위한 대한민국 NO.1 골마켓 광주 일곡점

- 그립교환
- 클럽피팅
- 트로피 제작
- 골프볼 로고제작
- 중고채 보상판매

광주 북구 연양로 155

영업시간 AM 09:30 ~ PM 20:00

주말/공휴일 AM 09:00 ~ PM 19:00

062.575.5456